

The Effect of Ability for Social Life of the Working Disabled on Employment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Che Sik Lee¹

이채식¹

¹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Information College, Korea, csleeyh@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w interpersonal skills, daily living skill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f the working disabled affect employment. For this goal, 3,995 people with wage work disabilities were analyzed by using the survey data on the employment panel for the disabled establish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Study results show that: first, ou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highest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us, average monthly income and degree of disability, sex, highest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us and average monthly income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but age and degree of disability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Second, in the sub-factors of ability for social life of the working disabled, results show that interpersonal competency, ability for daily life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olitical ·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are: first, a specialized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women and middle-aged with disability must be prepared, second,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a plan for practical ·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upported employment system and personal assistance system in workplace are necessary for improving ability of the disabled for their social life.

Keywords: Disabled Workers, Ability for Social Life, Employment, Interpersonal Competency, Ability for Daily Life, Participation Social Activities

요약: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인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가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에서 구축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장애인 3,9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 평균소득, 장애정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취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장애정도는 취업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하위변인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가 취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로장애인의 취업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은 첫째, 여성장애인과 중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고용제도, 근로지원인제도에 대한 실천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Received: October 15, 2022; 1st Review Result: November 29, 2022; 2nd Review Result: December 27, 2022
Accepted: January 31, 2023

핵심어: 근로장애인, 사회생활능력, 취업,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

1. 서론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등 중요한 영역이며,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1]. 따라서 최근에는 장애인고용이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과 고용기회 창출이라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2].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노동환경과 구조 속에 놓여져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29.5%로 나타났고 2017년의 36.9%에 비해서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 이는 2020년 전체인구 고용률이 60.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로서 장애인고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장애인 취업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취업 영향 결정요인으로서는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요인,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인적자본 요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의 장애특성 요인, 노동시장 특성요인 등을 들 수 있다[4-6]. 기존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취업 영향 요인들은 크게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인적자본, 기업특성 및 노동시장 환경 측면에서 다루어 져 왔고,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근로장애인 개인의 사회생활능력 측면에서의 연구나 이와 관련한 변인들은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장애인 취업에서 사회생활능력이 중요한 것은 취업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은 장애인복지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에서의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자립생활의 구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사회생활능력이 결여되거나 낮을 경우 사회활동과 참여에서 제한적이거나 대인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미 많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인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 및 참여 능력이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10].

그러나 기존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거나 또는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생활능력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인 일상생활능력과 대인관계능력 그리고 사회활동참여 능력 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장애유형 전체를 포함한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고 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근로장애인과 사회생활능력

근로 장애인이란 직업의 유형이나 직종과는 관계없이 사업장이나 사업에서 임금이나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 봉급, 일당과 같은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서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한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애인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정한 임금이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형태로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은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해 나갈수 있는 힘을 말한다[12]. 본 연구에서의 사회생활능력은 사회활동으로서 공식과 비공식 모두를 포함하여 직업활동, 사회 단체 모임, 동아리 활동, 종교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11].

이와 같이 근로장애인들의 사회생활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취업 이전 단계에서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류정진, 나운환은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훈련과 지원고용, 지역사회내 통합훈련 프로그램 실시 여부가 취업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13], 신현옥은 지체장애인의 취업결정에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한편 취업 이전 단계에서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취업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도 있다[6][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을 조작적으로 대인관계, 일상생활, 사회활동참여로 정의하였고, 사회생활능력이 근로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검증하였다.

2.2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과 취업 간의 관계 및 영향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인 대인관계, 일상생활, 사회활동참여와 취업과의 관계 및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근로장애인의 대인관계 능력과 취업과의 관계이다. 대인관계능력은 일상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역할 관계를 포괄하고 있고, 특히 고용분야에서 직장 동료들 과의 효과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조직의 업무성과와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능력이다[16]. 정홍인, 조대연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공식 및 비공식적 관계에서 축적된 대인관계능력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17],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능력이 낮거나 부족하면 사회적 분리와 소외를 경험하게 되며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채식, 김명식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생활능력이 취업과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발달장애인의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한편 근로장애인의 일자리만족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 일자리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9][20].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직무만족이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대상 및 변인에 따라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취업이나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전체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인관계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장애인의 취업과 일상생활능력과의 관계이다. 일상생활능력은 일상생활에서의 일상생활활동,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기술을 말한다[21]. 이와 같은 일상생활능력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그 기능이나 능력이

저하되면 타인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22].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일상생활능력과 자립생활과의 관련 연구로서 일상생활능력이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23][24], 박경수, 이채식, 이세영, 이석호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생활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도가 높을수록 직장생활 적응 및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25]. 이와 같이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사회생활 및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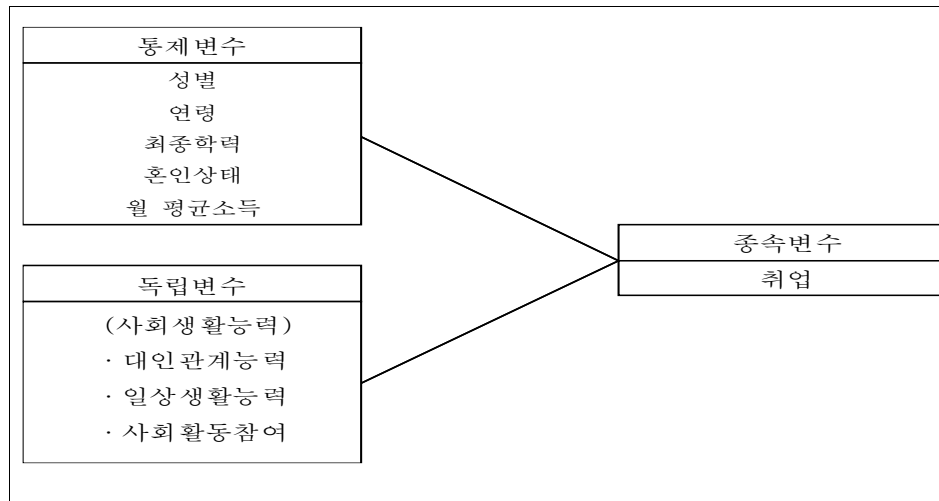
셋째, 근로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취업과의 관계이다. 사회활동은 한 개인이 지역사회 및 직장 기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서는 사회활동에 대한 개념으로 사회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외출, 문화 및 여가활동, 스포츠 활동, 사고 모임, 각종 공연 관람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3].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채식, 김명식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참여를 많이 할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10], 정재권은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은 사회활동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냈다[27]. 이승민은 전체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이 경제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26]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수준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고, 김재희는 청년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연구에서도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에 사회관계, 대인관계조직적응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28]. 이와는 반대로 강수연, 주란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과 취업여부 사이에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를 매개변수로 놓았을 때 간접효과로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서 다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9].

따라서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낮은 사회활동 참여는 경제활동이나 취업결정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인들의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활동 참여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인 대인관계, 일상생활, 사회활동참여는 장애인의 근로활동 수행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능력이 구직과정에서 직업훈련이나 직업재활프로그램 과정을 통하여 향상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취업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다음 [그림 1]의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평균 소득, 장애정도를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서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 그리고 사회활동참여능력이며, 종속변수로는 근로장애인의 취업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변수 구성 및 측정단위

본 연구에서의 변수구성 및 측정단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수구성, 측정방법

[Table 1] Variable Configuration, Measurement Method

구분	변수의 명	변수의 측정방법	
종속변수	취업	취업상태 1문항. 1=취업, 0=비취업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요인	1. 성별*	성별 1문항 남=1, 여=0
		2. 연령	만연령. 평균 45.57세(SD=12.67)
		3. 최종학력*	최종 학력 1문항 0=중졸이하, 1=고졸, 2=초대졸이상
		4. 혼인상태*	혼인상태 1문항 0=미혼, 1=결혼/동거, 2=이혼, 3=사별, 4=별거
		5. 월평균 소득	월평균의 소득. 평균 233.11만원(SD=279.25)
		6.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 0=경증 1=중증
독립변수	사회생활능력	1. 대인관계능력	4점 척도(리커트).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가끔 그렇다 4=매우 그렇다
		2. 일상생활능력 (역산)	4점 척도(리커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1=매우 필요하다 2=필요한 편이다 3=필요 없다 4=전혀 필요없다
		3. 사회활동참여능력	4점 척도(리커트). 일상생활 사회활동 참여정도 1=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2=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3=참여하는 편이다 4=많이 참여한다

*더미변수로 변환

3.3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에서 구축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인 통계자료(종단적 조사)를 사용하여 임금근로장애인 3,995명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임금근로자는 개인, 가구, 사업체와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급여 및 일당, 현물 등을 받는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를 말한다[28].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기법으로서 통제변수인 인구학적 특성요인들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과 취업과의 관계에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요인들을 통제하고,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 연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3,995)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609	65.3
	여	1,386	34.7
학력	중졸이하	1,049	26.3
	고졸	1,911	47.8
	초대졸 이상	1,035	25.9
혼인상태	미혼	1,554	38.9
	유배우(결혼/동거)	1,824	45.7
	이혼	440	11.0
	사별	148	3.7
	별거	29	0.7
장애정도	경증	2,688	67.3
	중증	1,307	32.7
평균 연령	45.57세(18-67세)		
월평균 소득	233.11만원(SD=279.25)		

조사대상자 3,995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우선, 성별에서 남성 2,609명(65.3%), 여성 1,386명(34.7%)이었다. 평균 연령은 45.57세(18세 이상 67세 이하), 학력에서 중졸 이하 1,049명(26.3%), 고졸 1,911명(47.8%), 초대졸이상 1,035명(25.9%)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 1,554명(38.9%), 유 배우(결혼/동거) 1,824명(45.7%), 이혼 440명(11.0%), 사별

148명(3.7%), 별거 29명(0.7%)이었다. 장애정도는 경증 2,688명(67.3%), 중증 1,307명(32.7%)이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233.11만원(SD:279.25)이었다.

4.2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과 취업과의 상관관계 분석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 중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2.76(SD=.85), 일상생활능력 평균 2.86(SD=.93), 사회활동참여 평균 2.25(SD=.83) 이었다. 사회생활능력 중 일상생활능력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없다"와 대인관계 능력은 "조직 적응력이 가끔 그렇다"에 근접하게 응답했다. 그러나 사회활동참여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에 가깝게 응답했다. 취업여부는 취업이 2,061명(51.6%), 미취업 1,934명(48.4%)이었다.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과의 상관관계의 분석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분산 팽창 요인)를 산출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와 취업과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 중 대인관계능력에서 취업($r=.25,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 중 일상생활능력에서 취업($r=.3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요인 중 사회활동참여에서는 취업($r=.31,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능력의 하위요인 모두 취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3] 사회생활능력과 취업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ocial Living Ability and Employment

변인	1	2	3	4
1	-			
2	.26**	-		
3	.30**	.30**	-	
4	.25*	.38**	.31**	-
M	2.76	2.86	2.25	.52
SD	.85	.93	.83	.50

주. 1.대인관계능력 2.일상생활능력 3.사회활동참여능력 4.취업

* $p<.05$ ** $p<.01$

4.3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을 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고자 주요 변수의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들 모두가 10에 근사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에서도 .10 보다는 모두가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검증되었다.

독립변수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분석 모형에서의 전체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44.001, p<.01$). 첫째, 근로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성별($\beta=.128, p<.01$), 최종학력(1)($\beta=.070, p<.01$), 최종학력(2)($\beta=.126, p<.01$), 혼인상태(1)($\beta=.176, p<.01$), 월평균 소득($\beta=.263,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여부)에 정적 영향, 만연령($\beta=-.044, p<.05$)과 장애정도($\beta=-.063,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장애인 중 남성이고 나이가 어리며, 학력은 고졸과 초대졸 이상이고, 혼인상태가 결혼/동거, 장애정도는 경증일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사회생활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에서 일상생활능력($\beta=.174, p<.01$), 사회활동참여($\beta=.106, p<.01$)과 대인관계능력($\beta=.071,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중 일상생활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좋고, 사회활동참여를 잘 할수록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4]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 of Social Living Ability of Disabled Workers on Employment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351	.040		8.862	.000		
1 성별	.137	.016	.131	8.797	.000	.911	1.098
만연령	-.002	.001	-.061	-3.185	.001	.554	1.804
학1	.102	.019	.103	5.380	.000	.554	1.806
학2	.198	.022	.179	9.004	.000	.510	1.959
혼1	.224	.019	.226	11.554	.000	.527	1.897
혼2	.058	.027	.036	2.097	.036	.695	1.438
혼3	.078	.044	.029	1.791	.073	.761	1.315
혼4	.051	.088	.008	.577	.564	.965	1.036
장애정도	-.167	.017	-.156	-10.005	.000	.828	1.207
월평균 소득	.001	.000	.298	19.661	.000	.881	1.135
(상수)	-.173	.051		-3.418	.001		
2 성별	.134	.015	.128	8.916	.000	.910	1.099
만연령	-.002	.001	-.044	-2.398	.017	.550	1.818
학1	.070	.018	.070	3.794	.000	.547	1.830
학2	.140	.022	.126	6.452	.000	.492	2.034
혼1	.175	.019	.176	9.211	.000	.512	1.951
혼2	.038	.027	.023	1.415	.157	.694	1.442
혼3	.029	.042	.011	.693	.489	.756	1.323
혼4	.029	.085	.005	.343	.732	.965	1.036
장애정도	-.067	.017	-.063	-3.855	.000	.708	1.412
월평균 소득	.001	.000	.263	17.847	.000	.862	1.160
대인관계능력	.042	.009	.071	4.775	.000	.857	1.167
일상생활능력	.094	.009	.174	10.876	.000	.730	1.369
사회활동참여	.063	.009	.106	6.955	.000	.804	1.243

a. 종속변수: 취업, 미취업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 그리고 사회활동참여가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요인을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취업향상과 증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근로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주요 특성을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45.57세이며, 학력은 고졸 이상, 유배우자 비율에서 높게 나타났다. 장애정도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2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남성인 경우 취업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기혼일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6][13][15].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 평균소득, 장애정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장애정도는 통계적으로 취업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고 연령이 낮고 학력이 고졸과 초대졸 이상, 혼인상태가 기혼, 장애정도가 경증장애일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여성과 중고령, 중증장애인, 낮은 학력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정책 및 실천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의 하위변인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가 통계적으로 취업에 유의한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근로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 중 일상생활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좋고 사회활동참여가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취업과 직업유지 및 일자리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20]. 또한 일상생활능력과 사회활동참여가 좋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5][27]와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장애인의 취업에 일상생활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활동참여 정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조사결과에서 성별에서 남성, 연령에서 낮은 연령, 학력에서 고졸이상, 장애정도에서 경증, 기혼자에서 취업 및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의 취업향상을 위해서는 여성, 중고령 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고용영역에서 장애와 성별로 인한 이중 장벽으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별 지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여성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고용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개발과 함께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학 전 자녀나 학령기 아동을

둔 여성장애인의 경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의 운영, 재택근무 활성화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겠다[29]. 또한 최근 장애인구 특성의 변화에 따라 중고령 장애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장애인 직업훈련의 경우 대부분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중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중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화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근로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가 좋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취업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활동참여를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현재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고용 실천현장에서 대표적인 제도로써 지원고용프로그램, 근로지원인제도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원고용프로그램과 근로지원인제도에서 장애인의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새로이 구성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원고용의 경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진입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다. 지원고용은 크게 지원고용의 준비단계, 실시단계, 고용유지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단계인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개인별 욕구와 장애상태를 감안하여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30]. 특히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서 대인관계능력 및 일상생활능력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근로장애인의 직장생활과 관련된 지원업무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참여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31]. 이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활동보조서비스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과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제도와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와 연계와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Reference

- [1] Y. Park, The Effects of Job Competency, Commitment, and Achievement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Work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0)
- [2] J. Y. Ahn, B. Y. Jeong, C. I. Park, S. J. Hwang,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Korea Labor Institute, (2002)
Available from: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pbcltListNo=5463&key=17>
- [3] Survey on Disabled People 202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1)
Available from: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type=policy&seq=47929>
- [4] D. U. Kang, An Analysis of Segmented Labor Market Structu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2), Vol.50, pp.157-172.
UCI: I410-ECN-0101-2018-338-001220182
- [5] D. C. Yu, A Study on the discrimination effect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in the labor market,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2)

- [6] S. H. Kim,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Employment of the Disabled,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2010), Vol.9, No.1, pp.137-167.
- [7] S. A.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ating Scale for Independent Living Ability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physical-psychological independent living ability-, Hann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0)
- [8] J. Y. Kim, A Research on Psycho-emotional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Statu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sycho-emotional factor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020), Vol.30, No.1, pp.1-25.
DOI: <https://doi.org/10.24226/jvr.2020.4.30.1.1>
- [9] S. Y. Kang, R. Ju,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bility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tatus of Employment: Focusing on the Causal Mediation Analysis with Multiple Mediators, the Participation in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and the Status of Assistant for Job, Disability & Employment, (2020), Vol.30, No.1, pp.5-24.
DOI: <https://doi.org/10.15707/disem.2020.30.1.001>
- [10] C. S. Lee, M. S. Kim, The Effect of Abilit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Social Activities (Interpersonal ability, Ability for daily activitie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Communication ability) on Employment and Job Maintena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GRI Review, (2021), Vol.23, No.3, pp.67-91.
- [11]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20)
- [12] W. Anthon, M. Cohen, M. Farkas, C. Gagne, Psychiatric rehabilitation (2nd ed), Boston: Center for Psychiatric Rehabilitation, (2002)
- [13] J. J. Ryu, U. H. Na, The Study on the Predictors of Employmen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6), Vol.40, No.2, pp167-193.
- [14] H. U. Shin, Predicting employment outcomes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 CHAID analysis, Disability & Employment, (2010), Vol.21, No.2, pp.119-152.
- [15] S. R. Oh, A study about the predictor variables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ocial Welfare Policy, (2008), Vol.34, pp.255-275.
- [16] C. R. Kaiser, C. T. Miller, Reacting to impending discrimination Compensation for prejudice and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01), Vol.27, No.10, pp.1357-1367.
- [17] H. I. Jeong, D. Y. Cho, The Effect of Informal Learning on Team Effectiveness,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2012), Vol.14, No.2, pp.45-64.
- [18] H. E. Lee, G. S. Kim,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Mentally Disabled Individuals, The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2013), Vol.3, No.1, pp.61-78.
- [19] T. U. Kwon, C. S. Lee, The Effect of Individual, Occupation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isabled Workers on the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Korea Academy of Care Management, (2019), No.30, pp.39-62.
DOI: <http://dx.doi.org/10.22589/kaocm.2019.30.39>
- [20] T. U. Kwon,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workers with self-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kill and job engagement-, University of Seoul, Doctoral Dissertation, (2020)
- [21] Activities of Daily Living Book Publication Committee, Activities of Daily Living(3rd Edition), HyunMoonSa Publishing, (2017)
- [22] J. G. Park,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theoretical model and its empirical test,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9)
- [23] J. Y. Yun, Independent Living: Meaning and Measurement: Focusing on the disabled using independent living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0)
- [24] E. G. Shin, J. Y. Kwak, The Factors Influencing Perceived Discrimi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aily Living,

Job Search, and Workplace, Disability & Employment, (2015), Vol.25, No.3, pp.269-292.
DOI: <http://dx.doi.org/10.15707/disem.2015.25.3.012>

- [25] G. S. Park, C. S. Lee, S. Y. Lee, S. H. Lee,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dependent Living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GRI Review, (2013), Vol.15, No.3, pp.93-112.
- [26] S. M. Lee,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level on the Quality of Life and Subjective Happiness :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University of Seoul, Doctoral Dissertation, (2020)
- [27] J. G. Jeong, Effect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Social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 Vol.21, No.11, pp.711-722.
UCI: I410-ECN-0101-2022-310-000065646
- [28] J. H. Kim, A Study on the Changing Patterns of Economic Activity in Young Adult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7), Vol.69, No.4, pp.127-152.
UCI: I410-ECN-0101-2018-338-001511395
- [29] J. G. Park, A Plan for Activation of Female Disabled Perso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07)
- [30] M. U. Kim, Y. L. Yun, Y. H. Cho, S. H. Jeong, A Study on the Problems and Plan for Improvement of Supported Employment Program in Korea,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05)
- [31] M. Y. Lee, Y. H. Nam, A Guidebook for the 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WPAS) Assessmen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14)